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6. 11. 2.(수) 총 2매(본문 1, 붙임 1)		
담당 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 과장 남재현, 서기관 김규섭 • ☎ (044) 200-5911		
보도일시		2016년 11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중일, 동북아 항만의 공동발전 위해 한 데 모여

- 11월 3 ~ 4일 인천 송도에서 제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개최한다.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 한중일 삼국의 항만분야 담당 국장급이 한 데 모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성과 논의, 2000년 이후 매년 삼국이 번갈아 개최

올해 회의에서는 ‘도시와 항만의 조화’를 주제로 삼국이 ‘항만재개발’ 관련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컨터미널 하역능력 연구, 3국 항만 관련 법률 비교 연구, 크루즈관광 활성화 등 삼국 국책기관의 공동 추진연구 과제 결과를 공유한다.

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항만물류 분야에의 적용, 항만분야의 첨단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중일 삼국은 세계 경제의 22%,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한중일 항만국장회의를 통해 삼국 간 교류와 협력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만 관련 세계적인 이슈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명칭 : 제 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The 17th Northeast Asia Port Director-General Meeting and Port Symposium)

□ 목적

- 한중일 항만 당국 대표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 항만 발전방향 모색
 - 항만분야 공동 관심사와 3국의 항만정책 추진 현황, 방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3국의 국책연구기관의 항만관련 공동 추진연구과제* 결과 보고
 - * 컨터미널 하역능력 연구, 3국 항만 관련 법률 비교 연구, 항만에 사람 유입 방안 등

□ 기간 : 2016. 11. 3.(수) ~ 11. 4.(금)

□ 장소 : 인천 송도 경원재 및 센트럴파크호텔

□ 동북아 항만심포지엄 주요 발표 자료

구분	주제	발표 제목 및 발표자		
		한국	중국	일본
Session 1	글로벌 여건변화에 대응한 항만정책	글로벌 여건변화에 대응한 항만정책	환경변화가 항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항만정책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난징항그룹 부총재	교토대학 교수
Session 2	4차 산업 혁명과 항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항만물류 적용	난통항의 새로운 도전과 신기회	항만분야의 ICT 활용(i-Construction)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난통항그룹 이사	항만공항종합기술센터 이사